

인 도구으로써 영아의 전반적인 신체 심리적 발달에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어린 영아는 신체접촉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어머니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신체접촉은 영아기 뿐 아니라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등 전 생애를 걸쳐 가장 폭 넓게 사용되는 일차적 대인간 의사전달의 기능을 하며,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정서적 지지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신체접촉이 갖는 의미는 계통발생학적으로 진화해 온 것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대인간 연결을 이끄는 기능을 하고 있다(Schiefenhovel, 1997).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인지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을 포함하여 영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시사해 왔다(Greenough, 1990; Stack, 2001).

어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신체 접촉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가 아기를 어떻게 신체접촉 하는가(Rubin, 1963)와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접촉(Contact) 효과를 검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신체접촉은 어머니와 영아를 결속시키며, 이런 결속은 한 방향으로의 애정적 연결이며, 출생 후 바로 또는 몇 일 내에 급속히 형성되는 것으로, 애착과는 다르다(Campbell & Taylor, 1980). 신체적 접촉은 결속의 효과를 진전시키므로, 이후 영아의 발달과 부모-아동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들어 성인이 제공하는 마사지에 대한 영아 반응이 연구되었다. Field(1998)에 의하면 신체접촉 치료법(touch therapies), 특히 마사지 치료법은 B.C. 1800년부터 사용하였다. 남아시아에서 어머니들은 매일 영아를 마사지한다. 이런 마사지는 영아의 뼈 골격을 단

단히 해주고 운동과 협응 능력을 촉진시키며 공포심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Reissland & Burghart, 1987). 이런 마사지의 효과는 삶의 초기에는 미성숙한 영아의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성장 후에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Field, 1998).

마사지의 효과가 사회 정서적 발달과 부모-영아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지만, 분명히 신생아의 신체접촉은 다양한 역할을 하므로 신체접촉이라는 감각은 부모와 영아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Konner(1976)에 의하면 Kalahari 사막에서 사냥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Kung족의 영아는 생후 3-6개월 동안 시간의 75%정도를 누군가와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자이레에서 살고 있는 약탈자 공동체인 Efe족의 영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성인과 신체접촉을 하며 보낸다.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신체접촉이 영아의 행동조직에 대한 조절을 일관성 있게 촉진시킨다는 사실이 주장되었다. 왜냐하면 Efe족들은 항상 집단 맥락내의 신체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풍부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실 연구에 의하면, 3, 6, 9개월 된 영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하는 시간 중에서 68%정도 신체접촉이 일어났다(Stack & Muir, 1992). 이러한 신체접촉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또는 놀이 장면에서 어머니의 음성과 시각적 표현과 더불어 일어난다. 초기 상호작용에서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촉각적 자극이 시각과 음성적 성분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신체접촉을 분리시키도록 고안된 SF절차(Still-Face: 무표정한 상태에서 영아를 바라보면서 소리도 내지 않고 있는)를 사용한 연구에 의하면 신체접촉이 없는 SF에서 보다 신체접촉이 있는 SF에서 영아는 더 많이 웃고 인상을 덜 찌푸렸다(Stack & Muir, 1990). 이는 어머니의 신체접촉이 영아에게서 정적 애정과 주의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단계와 비교했을 때, SF단계에서 영아의 응시나 미소 반응이 감소하며(Gusella, Muir, & Tronick, 1988), 중립적 반응과 음성적 반응이 증가된다(Ellsworth, Muir, & Hains, 1993). 신체접촉을 추가적으로 받은 영아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미소반응을 많이 보였으며, 정상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응시반응을 유지했다(Stack & Muir, 1990).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이 얼마나 일어나는가를 조사한 연구(Weinberg & Tronick, 1994)에 의하면, 상호작용 하는 동안 어머니들은 대부분의 시간동안 아기를 쓰다듬거나, 안거나 울동적인 신체접촉 했으며, 간질이기나 뽀뽀하기는 많이 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행동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일 때 나타난다. 찌르기와 꼬집기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신체접촉 유형으로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처럼 신체접촉의 유형에서 차이가 있다면, 신체접촉 각각의 유형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Tronick(1995)은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동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신체접촉 유형을 조사했는데, 쓰다듬기, 울동적 신체접촉, 붙잡기는 간질이기와 뽀뽀하기가 뒤에 수반되나, 찌르거나 꼬집기는 거의 수반되지 않았다. 쓰다듬

기를 받은 영아는 간지름 태우기나 찌르기를 받은 영아보다 더 미소짓고 더 소리냈으며, 덜 울었다(Peláez- Nogueras, Field, Gewirtz, Cigales, Gonzalez, Sanchez, & Richardson, 1997).

Stack와 LePage(1996)는 5.5개월 된 영아와 어머니를 면대면 상호작용을 시킨 후에 3개의 SF 상황에 참여시켰다(자연스럽게 신체접촉 하는 상황, 미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신체접촉 하는 상황, 신체의 한 영역을 구속하기 위해 신체접촉 하는 상황). 통제집단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4단계의 정상적 상호작용을 하게 했다. 결과에 의하면 정상적인 상호작용 단계와 모든 SF단계는 의미 있게 달랐고, 각 SF간의 차이가 있었다. 가령, 미소를 극대화시킬 것을 요구받은 어머니는 더 활동적인 신체접촉 유형을 사용했고(간질이거나, 들어 올린다), 강도와 속도가 세고 빨랐다. 단지 신체의 한 부분을 신체접촉 하도록 했을 때 쓰다듬는 신체접촉 유형이 증가되고 혼드는 유형은 감소되었다. 이처럼 지시를 받은 어머니는 짧은 기간에도 신체접촉을 변화시킨다. 이는 신체접촉을 통해 의사전달 되어 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접촉의 지속은 성인행동을 특징짓는 충분한 지표가 되지 못하며,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신체접촉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tack, LePage, Hains, & Muir, 2001). 이처럼 신체접촉은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의사전달의 기능을 하므로, 신체접촉 유형에 따라 발달적 통로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체접촉은 사회성 발달의 토대인 애착에 영향을 줄 있는 돌보는 행

위 중의 하나이다.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접촉

어머니는 생의 초기부터 영아를 가슴에 안고 잠을 재우기도 하고, 영아의 불안을 소시키기도 한다. 또한 껴안음으로써, 영아에 대한 애정을 증가시키기도 하므로, 신체접촉은 생이 끝날 때까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신체접촉은 영아가 돌보는 이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돌보는 행위 중의 하나가 된다. 신체접촉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신체접촉의 양 또는 빈도가 안전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안전 애착 영아의 어머니는 불안전 애착 영아의 어머니보다 더 광범위한 신체접촉을 사용하며, 신체적 놀이를 더 즐긴다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한 연구(Anisfeld, Casper, Nozyce, & Chunningham, 1990)에서는 어머니의 배 위에 다 아기를 안고 다닐 수 있는 부드러운 천으로 된 것에 의해, 이동된 영아와 영아용 의자에 앉아서 이동된 영아간의 애착을 비교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영아와 자주 신체접촉한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어머니보다 영아에게 더 많이 반응했으며, 애착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신체접촉의 양은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준다(Weiss, Wilson, Hertenstein, & Campos, 2000; Weiss, Wilson, Seed, & Paul, 2001).

신체접촉 빈도가 안전 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맥락에서, 신체접촉의 결핍이 공격성과 상관성이 있음이 제기되었다(Field, 2003). 미국과 프랑스의 학령 전 아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미국의 아동은 프랑스 아동보다 부모, 교사,

또래에 의해 신체접촉을 덜 받았고, 더 공격적이었다(Field, 1999). 가령,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프랑스의 학령 전 아동들은 관찰 시간의 35%를, 미국의 학령 전 아동은 11%정도를 신체접촉 받았다. 프랑스 아동은 놀이터에서 단지 관찰시간의 1%만을, 미국의 아동은 관찰 시간의 29%를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아동기에 경험한 신체접촉의 결핍이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되는 연구 등을 통해, 영아기 때 경험한 신체접촉의 결핍은 영아기 발달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신체접촉의 결핍이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안-회피 애착은 강압적이고 지나치게 자극을 주는 양육적 접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Vondra, Shaw, & Kevenides, 1995),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신체접촉은 애착 형성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불안전-회피 애착 영아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친밀한 신체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며, 신체접촉에 대한 이런 불편함이 아기에게 전해진다. 따라서 불안전 애착 영아는 발달하면서 신체접촉에 대해 어떤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신체 접촉 받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다(Pederson & Main, 1995).

둘째로, 신체접촉 유형이 애착에 영향을 준다. 안전하게 애착한 영아의 어머니는 불안전 애착 영아의 어머니보다 더 애정적이며 부드러운 양육적 신체접촉을 사용한다(Ainsworth et al., 1978). 그들은 아기를 더욱 어루만져주고, 꼭 껴안아주며, 뽀뽀해주고, 조심스럽고 온화하게 아기를 보살핀다. 다른 연구에서도 부드

럽고 애정적인 신체접촉이 안전 애착 영아의 어머니들에게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Network 1997). 그러나 불안-저항 영아의 어머니에게는 이런 유형의 신체접촉이 부족하다(Schneider-Rosen & Cicchetti, 1984). 그렇다고 부드럽고 애정적 신체접촉은 생득적으로 유익하다는 확증은 조심스런 주장이다. 만약 온화하고 애정적인 신체접촉이 바람직하지 않은 순간에 사용된다면, 부정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육적 신체접촉과 대조적으로 불안전 애착 영아와 혼란된 애착 영아의 어머니들은 거부적이고, 험악하며 돌발적인 신체접촉을 한다(Van der Kolk & Fisler, 1994). 거친 신체접촉의 영향은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설명되어 왔다. 그들은 강도 높은 불안전 애착특성을 보인다(Main & Hesse, 1990; Van IJsendoom, Goldberg, Kroonenberg, & Frenkel, 1992).

부정적인 신체접촉의 유형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우울 상태의 어머니에게서 비교적 빈번히 일어난다(Tronick, 1989).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의 증세를 더 많이 보고한 어머니가 자녀를 더 많이 접촉했다(Fergus, Schmidt, & Pickens, 1998). 그러나 그들은 쿡쿡 찌르거나, 간질이는 접촉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른 연구(Cohn & Tronick, 1989)에서도 우울상태의 어머니는 자녀를 찌르는 신체접촉을 더 많이 사용했다. 그들은 상호작용 동안 영아를 더 찌르고, 간지름을 태우고 쥐어박는 신체접촉을 더 많이 했다(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Stepakoff et al., 2000).

우울 상태에 있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부적인 심리 상태를 신체접촉을 통해 영아에게 전달한다. 물론 같은 접촉 유형이라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겠지만 우울한 어머니들은 일반적으로 찌르거나 쥐어박는 등의 신체접촉 유형을 사용했으며, 이런 접촉 유형은 영아에게 부정 정서를 유발시킨다(Hertenstein & Campos, 2001).

이처럼 어머니의 심리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접촉 유형이 애착 형성과 관련되므로 애착 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 유형은 어떤 심리적 상태에서 유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자발적 실체로서의 신체접촉 또는 돌보는 사람에게 의한 양육 방식으로서의 신체접촉

영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돌보는 방식이나 태도로부터 신체접촉의 효과만을 분리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머니의 목소리, 눈 맞춤, 그리고 미소 등의 요소들이 어머니의 돌보는 방식이나 태도의 지표가 되듯이 신체접촉은 광범위한 돌보는 접근 유형 중의 하나이다(Ainsworth et al., 1978).

그러나 돌보는 행동은 여러 측면의 특징을 갖는다. 돌보는 행동의 여러 측면은 최적의 결과와 연합되어질 수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상호 의존적인 것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Seifer와 Schiller(1995)는 모성적 온정과 민감성간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했다. 즉 어머니는 어떤 한 특성을 소유하지 않고도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가령, 돌보는 사람은 영아에게 잠재적으로 혐오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 유형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전반적인 온정과 관심을 보일 수 있다(Weiss, 1993).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감각양식을 통해 동

시에 다른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례는 비판적이거나 적대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미소짓는 사람이 있다. Montague (1986)에 의하면 공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나 안면표정과 상반되거나 아니면 관련되지 않는 무언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신체접촉을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어머니는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자녀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거친 신체접촉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유쾌한 목소리와 긍정적 안면정서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화(분노)를 감출 수 있다. 그런 관찰을 통해 어머니의 일반적인 돌보는 행동과 신체접촉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관계에서 돌보는 행동 양식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다.

분명히 신체접촉 유형이나 빈도는 영아의 애착과 이후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런데 이런 접촉 유형은 어머니의 내적 심리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적인 내적 특성에 따라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차이가 있는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어머니의 우울 정도나 불안정도, 양육스트레스 등에 따라 신체접촉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내적 변인에 따라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런 유형이 영아의 이후 사회 적응성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가에 대한 탐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내적 상태에 따라 신체접촉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기존의 연구(Fergus, Schmidt, & Pickens,

1998; Field, et al., 1990; Stepakoff et al., 2000)에서 살펴 본 어머니의 내적 변인 중, 우울 정도를 측정하여 우울에 따라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것이다.

둘째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어머니의 내적 변인 중,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접촉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영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그리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신체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면, 어머니의 내적 상태에 따른 접촉 유형의 차이는 양육 문제의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전국적으로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영아를 가진 총 960명의 어머니들이다.

연구 대상자 모집 방법

연구대상자는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모집되었다. 우선, 각 지역별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무선으로 선정하여 참여 대상자를 모집했고,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모집을 통하여 참가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김수정, 곽금주, 장유경, 성현란, 심희옥, 2003, 참조).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신체접촉 유형을 묻는 질문지와 어머니의 내적 변인을 묻는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연구자가 기존 연구(Hertenstein, 2002; Weiss, 1992)를 중심으로, 신체접촉의 유형을 임의로 만들어 선택식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김수정, 곽금주 등, 2003): 뽀뽀하기, 볼 쓰다듬기, 머리 쓰다듬기, 들어올렸다 내리기, 살짝 꼬집기, 간질이기, 껴안기, 살포시 안기, 흔들기, 찌르기, 잡기, 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등의 12가지를 나열하여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주 사용하는 유형을 2가지 이상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개방식으로 질문하여 사용되는 접촉 유형을 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했다. 어머니 변인을 알아보는 질문지는 기존 다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발췌하여 실시하였다.

우울(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어머니의 우울은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진술을 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0점~3점으로 총점은 0점~63점까지의 범위(0점~9점: 정상, 10~15점: 약간 우울, 16~23: 상당히 우울, 24점 이상: 심한 우울)를 갖는다. 본 연구에 사용된 BDI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로 나타났다.

어머니 태도 척도(MAS: Maternal Attitude Scale):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태도 측정은 Choler가 개발한 Maternal Attitude Scale의 233개 항목 중 아기 양육에 관한 23개를 선정 번

안한 MAS(Maternal Attitude Scale) 간편형을 사용하였다. 원래는 7점의 등간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1점~5점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55$ 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PSI: Parenting Stress Index):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측정은 박응임(1990)의 연구에 사용된 Abidin(1990)이 개발한 PSI(Parenting Stress Index)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영역 요인에 해당되는 22개의 문항만 사용되어졌다. 각 문항의 점수 범위는 1점~5점이며, 높은 점수로 갈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 로 나타났다.

실시 절차 및 검사자 훈련

2003년 1월 15일부터 가정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훈련받은 검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검사자 모집방법은 주로 연구 대상자 표집 지역의 주요 대학 게시판에 통하여 이루어졌다.

결 과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질문과 어머니 변인에 대한 설문은 3개월에서 36개월 된 영아를 가진 어머니에게 3개월 단위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했던 접촉 유형 12가지와 어

머니들이 기록한 신체접촉 유형 23가지를 합하여 어머니들이 아기에게 사용하는 신체접촉 유형은 총 35가지였다. 이중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된 유형 12가지를 정리하여 활동의 강도를 기준으로 두 가지 차원에 분류하였다.

(1) 양육적 신체접촉: 뽀뽀하기, 쓰다듬기(볼쓰다듬기+머리쓰다듬기), 안기(꼭안기+살포시안기), 마사지 해주기, 토닥토닥하기, 업기)

(2) 거친 신체접촉: 꼬집기, 간질이기, 찌르기, 흔들어 주기(흔들어 주기+무릎에 앉히고 흔들기), 잡기, 들어올렸다 내리기.

여기서 거친 신체접촉은 돌발적이고 학대적인 신체접촉 유형과는 어느 정도 구분된다.

어머니의 우울은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정상에 속한 정도와 약간 우울을 보인 어머니들을 우울 정도가 낮은 집단으로, 그리고 상당히 높은 우울과 심한 우울을 보인 어머니들을 우울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어머니 태도 척도에서 평균 점수보다 적은 점수를 가진 집단을 영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집단(낮은 집단)으로, 평균 점수를 포함하여 그 이상인 점수를 가진 집단을 영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집단(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양육스트레스(PSI)도 평균 이하 점수를 가진 집단을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으로, 평균 점수를 포함한 이상의 점수를 가진 집단을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우울에 따른 신체접촉 차원

접촉 차원	우울 정도	N	M	SD	t
양육적 신체접촉	낮은 집단	470	2.54	1.04	3.14**
	높은 집단	77	2.13	1.06	
거친 신체접촉	낮은 집단	470	1.98	1.97	1.43
	높은 집단	77	1.64	1.75	

** $p < .01$

표 2. 우울 정도가 낮은 집단의 신체접촉

접촉차원	N	M	SD	t
양육적 신체접촉	470	2.54	1.04	6.78***
거친 신체접촉	470	1.98	1.97	

*** $p < .001$

표 3. 우울 정도가 높은 집단의 신체접촉

접촉차원	N	M	SD	t
양육적 신체접촉	77	2.13	1.06	2.86**
거친 신체접촉	77	1.64	1.75	

** $p < .01$

우울 정도에 따른 신체접촉 차이

우울 정도에 따라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접촉 차원에서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때 각 차원에서 사용한 신체접촉 유형의 수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표 1).

우울 정도가 낮은 집단이나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은 거친 신체접촉보다는 양육적 신체접촉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표 2, 3). 우울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양육적

다. 우울 정도가 낮은 어머니들이 우울 정도가 심한 어머니들보다 양육적 신체접촉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거친 신체접촉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표 1).

우울 정도에 따라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이 더 사용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hi-Square와 Fisher's Exact Test가 실시되었다. 양육적 신체접촉 중, 뽀뽀하기($p<.05$)와 쓰다듬기($p<.01$) 그리고 마사지($p<.05$)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

표 4. 우울 정도에 따른 신체접촉 유형(%)

접촉유형	우울정도	낮은 집단	높은 집단	χ^2	자유도	유의도
양육적 신체접촉	뽀뽀하기	84.3	74.0	4.86	1	.027*
	쓰다듬기	62.8	42.9	10.92	1	.001**
	안기	83.8	81.8	.19	1	.659
	마사지	12.3	3.9	4.71	1	.029*
	토닥토닥 하기	4.0	2.6			.753
	업기	6.4	7.8	.21	1	.644
거친 신체접촉	꼬집기	16.8	6.5	5.41	1	.020*
	간질이기	47.0	45.5	.65	1	.798
	찌르기	18.7	11.7	2.24	1	.134
	흔들기	45.5	39.0	1.15	1	.282
	잡기	24.9	22.1	.28	1	.594
	들어올렸다 내리기	44.9	39.0	.94	1	.331

* $p<.05$, ** $p<.01$

신체접촉의 사용 정도에서 차이를 알아보았 이를 보였다. 우울이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이

표 5. MAS에 따른 신체접촉

접촉 차원	MAS 점수	N	M	SD	t
양육적 신체접촉	낮은 집단	263	2.43	1.00	-1.08
	높은 집단	283	2.53	1.09	
거친 신체접촉	낮은 집단	263	1.79	1.82	-1.64
	높은 집단	283	2.06	2.04	

표 6. MAS점수가 낮은 어머니의 신체접촉

접촉 차원	N	M	SD	t
양육적 신체접촉	263	2.43	1.00	6.19***
거친 신체접촉	263	1.79	1.82	

*** $p<.001$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뽀뽀하기, 쓰다듬기, 그리고 마사지를 자녀에게 더 해주었다. 거친 신체접촉 중, 꼬집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우울 정도가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꼬집기를 더 많이 하였다(표 4).

어머니 태도척도(MAS)에 따른 신체접촉 차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점수에 따라

접촉 차원에서 차이가 분석되었다(표 5). 어머니 태도 척도 점수가 평균 이하와 평균 이상의 어머니들 모두가 거친 신체접촉보다는 양육적 신체접촉을 더 많이 사용했다(표 6, 7). 영아에 대한 어머니 태도 점수에 따라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이 더 사용되는가를 알아 보았다. 양육적 신체접촉 유형들에서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 거친 신체접촉 유형 중에서 찌르기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표 7. MAS점수가 높은 어머니의 신체접촉

접촉 차원	N	M	SD	t
양육적 신체접촉	283	2.53	1.09	4.34***
거친 신체접촉	283	2.06	2.04	

*** $p<.001$

표 8. MAS점수에 따른 신체접촉 유형(%)

접촉유형	MAS점수	집단		χ^2	자유도	유의도
		낮은 집단	높은 집단			
양육적 신체접촉	뽀뽀하기	82.5	83.4	.07	1	.784
	쓰다듬기	58.6	61.5	.488	1	.485
	안기	83.7	83.0	.03	1	.848
	마사지	9.9	12.4	.84	1	.358
	토닥토닥 하기	2.7	4.9	1.92	1	.165
	엮기	5.7	7.4	.65	1	.419
거친 신체접촉	꼬집기	12.9	17.7	2.35	1	.125
	간질이기	46.0	47.3	.09	1	.753
	찌르기	13.7	21.6	5.77	1	.016*
	흔들기	43.0	45.9	.48	1	.485
	잡기	21.7	27.2	2.25	1	.133
	들어올렸다 내리기	41.4	46.3	1.29	1	.254

* $p<.05$

표 9. PSI에 따른 신체접촉

접촉차원	PSI 점수	N	M	SD	t
양육적 신체접촉	낮은집단	273	2.53	0.97	1.19
	높은집단	271	2.42	1.13	
거친 신체접촉	낮은집단	273	2.12	1.99	2.37*
	높은집단	271	1.73	1.88	

* $p<.05$

.05). 영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어머니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찌르기를 더 많이 하였다(표 8).

양육스트레스(PSI)에 따른 신체접촉 차이

양육 스트레스 점수에 따라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접촉 차원에서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9). 스트레스가 높은 낮은 지간에 어머니들은 양육적 신체접촉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표 10, 11). 하지만 거친 신체접촉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t(542)=2.379, p<.05$. 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거친 신체접촉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표 9).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이 사용되는 가를 알아보았다. 양육적 신체접촉 유형 중에서, 뽀뽀하기($p<.05$)가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에 의해 더 자주 사용되었다. 거친 신체접촉 유형 중에서는 들어올렸다 내리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어머니들이 들어올렸다 내리기의 접촉 유형을 자녀에게 더 많이 사용했다(표 12).

논 의

감각체계로써 그리고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써 신체접촉은 부모와 영아간 관계에 중요하며, 이것이 의사전달 의미를 초래하기 때문에 영아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김수정, 곽금주, 2003).

어머니의 심리 상태는 신체접촉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가령, 정서적으로 긍정적일 때, 어머니는 아기를 쓰다듬거나, 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는 찌르거나 꼬집기와 같은 접촉 유형을 사용한다(Weinberg & Tronick, 1994). 쓰다듬기를 받은 영아는 찌르기를 받은 영아보다 미소를 더 짓고, 소리를 더 냈으며, 울음을 덜 울었다(Pelaez-Nogueras, et al., 1997). 이처럼 신체접촉 유형에 따라 영아의 정서상태를 조절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내적인 심리상태에 따라 신체접촉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 정도가 낮은 어머니들과 우울 정도가 높은 어머니들 모두가 거친 신체접촉 보다는 양육적 신체접촉을 더 많이 사용했다. 이는

표 10. PSI점수가 낮은 어머니의 신체접촉

접촉 차원	N	M	SD	t
양육적 신체접촉	273	2.53	0.97	3.81***
거친 신체접촉	273	2.12	1.99	

*** $p<.001$

표 11. PSI점수가 높은 어머니의 신체접촉

접촉 차원	N	M	SD	t
양육적 신체접촉	271	2.42	1.13	6.66***
거친 신체접촉	271	1.73	1.88	

*** $p<.001$

표 12. PSI에 따른 신체접촉 유형(%)

접촉유형	스트레스	낮은 집단	높은 집단	χ^2	자유도	유의도
양육적 신체접촉	뽀뽀하기	86.1	79.3	4.32	1	.037*
	쓰다듬기	62.6	57.2	1.67	1	.195
	안기	86.4	80.8	3.15	1	.076
	마사지	10.6	11.8	.19	1	.661
	토닥토닥 하기	2.6	5.2	2.48	1	.115
	업기	4.8	8.1	2.54	1	.111
거친 신체접촉	꼬집기	17.6	12.9	2.29	1	.130
	간질이기	49.8	43.5	2.15	1	.142
	찌르기	18.7	16.6	.40	1	.525
	흔들기	48.4	41.0	3.00	1	.083
	잡기	27.1	21.8	2.09	1	.148
	들어올렸다 내리기	50.9	37.3	10.27	1	.001**

* $p < .05$, ** $p < .01$

한국 어머니들이 전반적으로 거친 신체접촉 보다는 양육적 신체접촉을 더 자주 사용했다는 연구 결과(김수정, 광금주 등, 2003)와 같은 맥락이다.

우울 정도에 따른 사용 유형에서, 우울이 낮은 상태의 어머니들이 우울이 높은 상태의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뽀뽀하기, 쓰다듬기, 그리고 마사지를 더 자주 하였다. 이처럼 우울이 낮은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애정 표현이나 쓰다듬는 접촉 유형을 더 자주 한다는 연구결과는 우울이 높은 어머니가 양육적 신체접촉보다는 거친 신체접촉을 한다는 연구(Field, et al., 1990; Stepakoff et al., 200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거친 신체접촉 중에서는, 우울이 낮은 어머니들이 우울이 높은 어머니들보다 꼬집기를 자녀에게 더 많이 하였다. 이는 우울 정도가 심한 어머니들이 찌르기나, 간지름을 태우거나 쥐어박는 등의 접촉 유형을 한다는 선행 연구(Cohn & Tronick, 1989; Fergus, Schmidt, & Pickens, 1998; 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Stepakoff et al., 2000)와는 다른 양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낮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더 많이 꼬집는 신체접촉을 했다. 전체적으로 우울이 낮은 어머니들이 거친 신체접촉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마도 우울 정도가 낮은 어머니들이 우울이 심한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의욕적이며 양육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어머니들은 거친 신체접촉보다는 양육적 신체접촉을 더 많이 사용했다. 아마도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가져도, 그런 내적 상태를 양육 현상으로까지 표현하지 않는 것 같다. 전통적인 한국의 어머니들은 여러 심리적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에게 극진한 사랑과 희생적인 양육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머니들은 어떠한 부적 정서 상태에서도 자녀에게는 보다 애정적인 양육적 신체접촉

을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영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어머니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찌르기를 더 했다. 일반적으로 찌르기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가진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하는 신체접촉 유형인데, 본 연구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김수정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생후 16개월부터 22개월까지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찌르기를 자주 사용하였다. 아마도 본 연구에서는 발달 경향을 고려하지 않고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에 초점을 두고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차이만을 분석하였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분명한 논의가 언급될 필요가 있다.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어머니들은 거친 신체접촉보다는 양육적 신체접촉을 사용했다. 이런 양상도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일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느끼는 스트레스가 심해도 어머니들은 그런 부적인 상태를 양육 차원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언급되었듯이 어머니의 내적 변인을 중심으로 신체접촉에서의 차이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한정적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사용된 접촉 유형에서, 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들은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보다 양육적 신체접촉 중, 뽀뽀하기를 더 많이 하였다. 우울 정도가 낮은 어머니들도 뽀뽀하기를 더 많이 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뽀뽀하기는 적극적인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이 시사된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기질적 특성이나

성격적인 측면, 또는 어린 시절의 신체접촉에 대한 개인 적 역사 등에 따라서도 애정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신체접촉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내적 변인에 따라 신체접촉 차원과 유형에서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전반적으로 어머니들은 내적 심리 상태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양육적인 신체접촉 유형을 더 자주 사용하였다.

다만 우울이 낮은 어머니들은 평균적으로 2.54개의 양육적 신체접촉 유형을, 우울이 심한 어머니들은 2.13개의 접촉 유형을 사용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된 어머니들이 양육적인 신체접촉 유형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이 낮은 어머니들이 더 자주 사용한 뽀뽀하기, 쓰다듬기 그리고 마사지는 자녀에게 애정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접촉 유형이다. 거친 신체접촉 유형 중에서는 꼬집기를 더 자주 하였다. 꼬집기는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자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접촉 유형으로 여겨지지만, 영아와의 즐거운 상호작용에서 어머니들이 하는 꼬집기는 애정이나 놀이의 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우울이 낮은 어머니들이 꼬집기를 더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맥락을 고려한 해석이 요구되므로(김수정, 곽금주, 2003 참조), 이후 연구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할 문제가 된다.

영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어머니들이 찌르기라는 거친 신체접촉을 더 많이 사용한 것도 우울이 낮은 어머니들이 꼬집기라는 거

친 신체접촉을 더 자주 사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들은 2.12개, 높은 어머니들은 1.73개의 거친 신체접촉 유형을 사용했으며, 이런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들이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므로, 자녀에 대해 더 의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다양한 신체접촉 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들이 뽀뽀하기와 들어올렸다 내리기를 자주 사용했다. 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들이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보다 애정표현인 뽀뽀하기를 자주 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들어올렸다 내리기 유형은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접촉 유형으로 (Stack & LePage, 1996), 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들이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 보다 웃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들어올렸다 내리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내적 상태에 따라 신체접촉 차원과 접촉 유형에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영아발달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인 신체접촉에 관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근거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질 문제 등을 논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체접촉은 어머니의 의도나 감정 또는 생각 등을 전달하는, 광범위한 양육 행동의 일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내적 상태에 따른 신체접촉 유형에서 부분적인 차이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발췌하여 측정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내적 상태에 대한 측정에서 정확성이 미비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돌보는 이의 내적 변인을 측정하는 정확한 도구의 사용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3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 모두 합쳐서 분석을 하였으므로, 3년간 영아들의 발달경향에 따라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신체접촉 유형에서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발달에 따른 접촉 유형에서의 변화를 아울러 분석함으로써 보다 분명한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변인 이외의 또 다른 변인과의 관계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돌보는 이의 자아개념이나, 불안정도, 양육에 대한 신념이나 양육 지식, 그리고 결혼 만족도나 경제적 요인 등, 돌보는 사람을 둘러싼 내적·외적 요인 등에 따른 신체접촉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신체접촉 유형을 조사하는 질문지가 좀더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접촉 유형의 사용 유무 정도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신체접촉을 좀더 강도 있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체접촉을 사용하는 정도를 점수로 척도화 시켜서,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신체접촉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들은 보완된 신체접촉 질문지를 개발 중에 있다.

어머니들이 내적인 불편함이 있어도 자녀에게 애정 어린 양육적 접촉 유형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어머니

니들의 자녀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된 연구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어머니의 내적·외적 변인에 따른 신체접촉에서의 차이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접촉은 영아기 뿐 아니라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등 전 생애를 걸쳐 가장 폭 넓게 사용되는 일차적 대인간 의사전달의 기능과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요소이므로, 신체접촉에 대한 연구는 양육 현장뿐 아니라 대인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수정, 곽금주 (2003). 의사전달로서의 영아기 신체접촉. *인간발달연구*, 10(1), 51-73.
- 김수정, 곽금주, 장유경, 성현란, 심희옥 (2003). 영아기 발달에 따른 한국 어머니의 신체접촉 양상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75-97.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nisfeld, E., Casper, V., Nozyce, M., & Cunningham, N. (1990). Does infant carrying promote attachment?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increased physical contact on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1, 1617-1627.
- Campbell, S. B. G., & Taylor, P. M. (1980). Bonding and attachment: Theoretical issues. In P. M. Taylor (Ed.), *Parent-infant relationships* (p. 3-23). New York: Grune & Stratton.
- Cohn, J. E., & Tronick, E. Z. (1989). Specificity of infants' response to mothers' affective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242-248.
- Ellsworth, C. P., Muir, D. W., & Hains, S. M. H. (1993). Social competence and person-object differentiation: An analysis of the still-face effect.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3-73.
- Fergus, E. L., Schmidt, J., & Pickens, J. (1998, April). *Touch during mother-infant interactions: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Infant Studies, Atlanta, GA.
- Field, T. (2003). *Touch*. Cambridge, MA: MIT Press.
- Field, T. M. (1999). Preschoolers in America are touched less and more aggressive than preschoolers in Franc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51, 11-17.
- Field, T. M. (1998). Touch therapy effects on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2, 779-797.
- Field, T., Healy, B. T., Goldstein, S., & Guthertz, M. (1990).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ersu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14.
- Gusella, J. L., Muir, D. W., & Tronick, E. Z. (1988). The effect of manipulating maternal behavior during an interaction of 3- and 6-month-olds' affect and attention. *Child Development*, 59, 1111-1124.
- Greenough, W. T. (1990). Brain storage of information from cutaneous and other modalities in development and adulthood. In K. E. Barnard & T. B. Brazelton (Eds.), *Touch: The foundation of experience: Full revised and expanded proceedings of Johnson & Johnson Pediatric Round Table X* (pp. 97-126).

-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ertenstein, M. J., & Campos, J. J. (2001). Emotion regulation via maternal touch. *Infancy*.
- Konner, M. J. (1976). Maternal ca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among the Kung. In R. B. Lee & I. DeVore(Eds.), *Kalahari hunter-gatherers: Studies of the Kung San and their neighbors* (pp. 218- 24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in, M., & Hesse, E. (1990). Parents' unresolved traumatic experiences are related to infant disorganized attachment status: is frightened and/or frightening parental behavior the linking mechanism? In M. T. Greenberg & D. Cicchetti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161-18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Montagu, A. (1986). *Touching: The human significance of the skin* (3rd ed.), New York: Harper & Row.
- Network, N. E. C. C. R.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879.
- Pederson, D. R., & Moran, G. (1995). A categorical description of infant-mother relationships in the home and its relation to Q-sort measures of infant-mother interac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 111-132.
- Peláez-Nogueras, M., Field, T., Gewirtz, J. L., Cigales, M., Gonzalez, A., Sanchez, A., & Richardson, S. C. (1997). The effects of systematic stroking versus tickling and poking on infan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69-178.
- Reissland, N., & Burghart, R. (1987). The role of massage in South Asia: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5, 231-239.
- Rubin, R. (1963). Maternal touch. *Nursing Outlook*, 11, 328-331.
- Schiefenhovel, W. (1997). Universals in interpersonal interactions. In U. Segerstrale & P. Molnar (Eds.), *Nonverbal communication: Where nature meets culture* (pp. 61-7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chneider-Rosen, K., & Cicchetti, D. (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 and cognition in maltreated infants: quality of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visual self-recognition. *Child Development*, 55, 648-658.
- Seifer, R., & Schiller, M. (1995). The role of parenting sensitivity, infant temperament, and dyadic interaction in attachment theory and assess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 146-174.
- Stack, D. M. (2001). The salience of touch and physical contact during infancy: Unraveling some of the mysteries of the somaesthetic sense. In A. Fogel & G. Brem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London: Black well.
- Stack, D. M., LePage, D. L., Hains, S., & Muir, D. W. (2001). *Differential touch as a function of instruction during mother-infant interactions: Application of the Caregiver-Infant Touch Scale (CITS)*. Manuscript under revision.
- Stack, D. M., & LePage, D. E. (1996). Infants' sensitivity to manipulations of maternal touch during face-to-face interactions. *Social Development*, 5, 41-55.
- Stack, D. M., & Muir, D. W. (1992). Adult tactile stimulation during face-to-face interactions modulates 5-month-olds' affect and attention. *Child Development*, 63, 1509-1525.

- Stack, D. M., & Muir, D. W. (1990). Tactile stimulation as a component of social interchange: New interpretations for the still-face effec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131-145.
- Stepakoff, S., Beebe, B., & Jaffe, J. (2000). *Mother-infant tactile communication at four months: Infant gender, maternal ethnicity, and maternal depression*. Post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Brighton, England
- Tronick, E. Z. (1995). Touch in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 M. Field (Ed.), *Touch in early development* (pp. 53-65). Mahwah, NJ: Erlbaum.
- Tronick, E. Z. (1989). Emo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44, 112-119.
- Van der Kolk, B. A., & Fislser, R. E. (1994).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nd loss of self-regulation.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8, 145-168.
- Van IJsendoorn, M. H., Goldberg, S., Kroonenberg, P. M., & Frenkel, O. J. (1992). The relative effects of maternal and child problems on the quality of attachment: a meta-analysis of attachment in clinical samples. *Child Development*, 63, 840-858.
- from multiple, contemporaneous measures of maternal care.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61, 415-425.
- Weinberg, M. K., & Tronick, E. Z. (1994). Beyond the face: An empirical study of infant affective configurations of facial, vocal, gestural, and regulatory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503-1515.
- Weiss, S. J., Wilson, P., St. John Seed, M., & Paul, S. M. (2001). Early tactile experience of low birth weight children: Links to later mental health and social adapta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0, 93-115.
- Weiss, S. J., Wilson, P., Hertenstein, M. J., Campos, R. (2000). The tactile context of a mother's caregiving: Implications for attachment of low birth weight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3, 91-111.
- Weiss, S. J. (1993). Familial touch and perceptual reactivity of with severe mental illness. *New directions in mental Health Services*, 58, 53-64.
- Weiss, S. J. (1992). Measurement of the sensory qualities in tactile interaction. *Nursing Research*, 41, 82-86
- Vondra, J. I., Shaw, D. S., & Kevenides, M. C. (1995). Predicting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

The differences in the touch patterns to mother's internal states

Keumjoo Kwak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uchung Kim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touch patterns to the mother's internal states. 960 mothers of babies aged from 3 to 36 months old were involved. The differences of touch patterns to mother's depression, maternal attitude scale, and parenting stress index, were analys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are no differences in the touch dimensions to mother's depression. Regardless of the depression, mothers used more nurturing touch than harsh touch. However, more severely depressive mothers used the kissing and the stroking of the nurturing touch than mild depressive mothers. Regarding to the mother's attitude and the parenting stress of their infants, more nurturing touch was used than harsh touch. Moreover, mothers with low parenting stress index used many harsh touch patterns than those with high parenting stress index(especially, they used lifting). In general, although Korean mothers are internally uncomfortable, they affectionately touched their infants. This could be explained with Korean culture in which mothers do not usually express their internal uncomfortableness.

Keywords : infants, touch, depression, maternal attitude, parenting stress